

주체와 타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여성영웅소설

이지하 (서울대)

1. 서론
2. 주체화 과정을 통해 본 여성영웅의 여성인식
2.1. 여성영웅의 성 정체성
2.2. 여성영웅의 주체화 과정
3. 주체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영웅의 의의와 한계
4. 결론

1. 서론

유교적 가부장제가 여성들에게 강한 구속력을 행사하던 조선후기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활약상을 그린 작품들이 다수 창작되고, 또 널리 향유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조선후기 군담소설의 유행과 더불어 한 흐름을 형성하였던 여성영웅소설은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크게 제약받던 시절에 여성이 남자들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정치권에 들어가 공을 세우는 설정과, 그것도 지략으로서가 아니라 군사적 능력에 의해 남성들을 제압하는 파격적인 내용으로 인해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주로 그 유형화에 집중되었다.¹⁾ 그러나 본 논문의 주된 관심은 여성영웅소설과 관련된 여성적 논의들을 재검토해보는 것이므로 주로 소설의 주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사를 검토해 보면 이러한 작품군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여성영웅이 여권의 신장이나 여성의 자아실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논의들이 있다.²⁾ 이러한 논의들은 여성영웅들이 유교적 가부장제의 한계 속에서도 여성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는 당대 사회의 남성 지배적 질서를 비판하는 가운데 여성들의 꿈과 이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에 비해 이 소설들이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 영웅적 활약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의 가치를 일정 정도 인정하지만 여성인식의 측면에 비추어 볼 때 비판적인 평가를 내릴 만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는 논의들이 또 다른 흐름을 형성한다.³⁾ 이들에 의하면 여성영웅들은 표면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신장시

1) 성현경, 「여결소설과 설인귀전」, 『국어국문학』 62•63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73.
정명기, 「여호결계 소설의 형성과정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80.
여세주, 「여장군 등장의 고소설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1981.
민 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6.
전용문, 「여성영웅소설의 계통적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1988.
2) 김연숙,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시각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1995.
정병현·이유경,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사, 2000.
차옥덕, 「女道 거부를 통한 남성우월주의의 극복: <홍계월전>, <정수정전>, <이화사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5권 2호, 1999.
3) 박명희, 「고소설의 여성중심적 시각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89.
이인경, 「홍계월전 연구-갈등양상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17, 서울대 국문과, 1992.
장시광,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과 여화위남」, 『한국고전소설과 여성인물』, 보고서, 2006.

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저변에는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여전히 여성을 가부장제 안에 가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여성영웅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적 인식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위의 두 관점은 서로 논쟁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간의 여성영웅소설에 관한 연구를 심화시켜 왔다. 그리고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영웅적 여성이 결국은 가정으로 돌아가는 설정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근거로 여성영웅소설이 보여준 여성의식을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영웅들처럼 남성의 질서에 기대어 여성의식을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 역시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⁴⁾

이 논문은 이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해보기 위해 주체와 타자의 시각으로 여성영웅소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남성 지배질서 속에서 타자화 된 존재로 늘 주변부에 위치해야 했던 여성들이 여성영웅소설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앞세워 중심부를 지향하는 주체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일단 긍정적인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그들의 주체화가 남성적 질서에 기대어 남성의 외피를 덧입고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영웅이 어떻게 주체화를 이루어가며 그 과정에서 타자로서의 여성 존재에 대해 어떤 각성을 이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영웅들이 진정한 주체로 자리매김 했는가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라 하겠는데 이를 통해 여성영웅과 그들의 여성적 인식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주체화 과정을 통해 본 여성영웅의 여성인식

2.1. 여성영웅의 성 정체성

여성영웅들의 주체화 과정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이 당대 사회에서 타자화된 주변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여성의 처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얼마나 확고했는지가 확인되어야 여성영웅들의 여성적 인식을 논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크게 두 번의 중요한 사건을 경험한다. 첫 번째는 여성임을 숨기고 남성으로 변모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다시 여성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생물학적 성을 숨기고 다른 성으로 행세하게 되는 이유와 과정이 주목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본성의 회복과 혼인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여성영웅이 자신의 성과 관련하여 가정 내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지가 주목된다.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들이 여자로서의 삶을 외면하고 男服을 입게 되는 이유는 작품에 따라 다르게 그려진다. 선천적으로 활달한 기질과 남자 같은 기상을 타고나 자발적으로 무예를 숭상하고 女工을 폐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부모가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이 없어지거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여자의 몸으로는 곤경을 **헤쳐나가기(헤쳐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男服을 입는 경우도 있고, 부모에 의해 어려서부터 남자로 길

박상란, 『여성과 고소설, 그리고 문학사』, 한국학술정보, 2005.

4) 최근 이러한 입장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여성영웅소설을 재검토하기 위해 평등과 차이의 개념을 통해 여성영웅소설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세계여성사의 보편적 문제가 조선 후기 가부장제 사회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것이 지니는 의미를 환기한 논의가 제출된 바 있다.(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차이·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31, 민족문학사학회, 2006.)

러지는 경우도 있다. 이 중 어려서부터 자발적으로 남자 행세를 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가 이들의 기질을 인정하고 동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작품과 부모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갈등을 겪는 작품으로 다시 나뉜다. <이학사전>, <방한림전> 등은 부모가 동조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옥주호연>은 부모가 강하게 반대하는 경우이다. 한편 여성으로서 성장하다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남자 행세를 하게 되는 경우로는 <정수정전>과 <이대봉전>을 들 수 있고, 부모에 의해 남복을 입게 되는 경우로는 <홍계월전>을 들 수 있다.⁵⁾

<이학사전>의 이현경과 <방한림전>의 방관주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아이 못지않은 기상과 외모를 지니고 있으며, 어려서부터 남자의 행실을 동경한다. 그들의 부모 역시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女工을 가르치는 대신 자식의 소원대로 男服을 입게 하고 詩書를 가르친다. 그러던 중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들이 계속 남자 행세를 하며 성장하자 세상 사람들은 이들이 남자인 줄 안다. 오직 유모만이 장래를 걱정하며 여자로서 살아갈 것을 권하지만 이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남자로 행세하며 살 것을 고집한다. 이현경과 방관주의 경우 男服을 입게 되는 과정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고민하거나 외부 세계와 갈등을 겪는 모습은 그려지지 않는다. 이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스스로 자신이 여성임을 자각하거나 그에 대해 고민할 여지없이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남성화해 버린 듯하다. 따라서 장래를 걱정하며 조언하는 유모들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해 버리며 자신의 장래를 크게 근심하지도 않는다.⁶⁾ 오히려 유모의 말이 우습게 느껴질 정도로 이들에게는 남자로서의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즉 이현경과 방관주의 경우 남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기질대로 행동해도 세상의 저항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하겠다.

그러나 <옥란호연>의 유자주, 벽주, 명주 세 자매의 경우 부모가 그들의 남성지향적 행위를 강하게 반대함으로써 큰 갈등이 유발된다. 女工을 배우지 않고 후원에서 무예만 익힌다고 꾸중하는 부모에게 이들은 규방에 머물면 입신양명하여 부모에게 영화를 끼칠 수 없을뿐더러 세상이 혼란스러우니 어찌 女道를 지키며 허송세월하겠느냐고 대답한다. 이후에도 이들의 태도에 변함이 없자 유공이 병서를 불지르며 크게 화를 내지만 세 자매는 하늘을 향해 여자로 태어난 것을 원망할 뿐 뜻을 굽히지 않는다. 결국 부친이 셋 중 하나를 죽여 경계하겠노라고 결단을 내리자 이들은 男服으로 같이 입고 기출을 감행하고 만다. 이처럼 유자주 자매의 경우 이현경이나 방관주에 비해 여자의 도리를 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부모로 인해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한편 <정수정전>의 정수정과 <이대봉전>의 장애황은 십대가 될 때까지 본성대로 여자로 자라난다. 이 때까지 이들이 남자의 삶을 동경했다거나 남성적 기질을 타고났다가 하는 언급은 없다. 그러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부모가 돌아가시자 상황이 달라진다. 여성의 사회 활동이 제한적이었던 시절에 아직 성혼하기 전의 여성이 부모라는 보호막 없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막막한 일인데다가, 여자의 몸으로는 부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정적에게 복수할 길도 없다. 정수정의 경우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부모의 원수를 갚는 방편으로 남자 행세를 하는 길을 택한다. 이 경우 정수정의 남장은 스스로 고민하고 택한 것이므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장애황의 경우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여성으로서의

5) 여성영웅소설은 이 외에도 여러 편이 존재하나 본고의 목적이 모든 여성영웅소설들을 대상으로 유형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논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그 중 대중적인 인지도가 강하고,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여성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다루어졌던 작품들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6) “니 님의 선친과 모명을 빗자와 남아로 뵈는 지 삼년이 거의요 호 번도 기복호 비 읍난이 웃지 줄연이 너의 집심을 곳치어 선부모의 뜻을 저바리이요? 니 맞당이 입신양명호야 부모의 후사를 빛나리이 어머니 괴로운 열눈을 다시 말나.” <방한림전>
“유피 웃을 벗기며 이로오되 장니스를 엇지코즈 호며 홀노 공즈를 거느리시고 혼취호미 실노 밧브거늘 쇼제 규중의 귀호신 몸으로 환연호 남즈 되어 너즈의 도를 힘치 아니호시니 로신이 위호야 근심호는이다. 현경 왈 어머니 가히 우읍도다 내 평성의 남복으로 늑고즈 호거늘 엇지 혼취를 심각호리오. 유피 이 말을 듯고 대답을 못호고 유유히 물러가니라.” <이학사전>

삶을 유지하다가 왕희 부자의 결혼 강요와 겁탈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男服을 갈아입고 집을 떠나게 된다. 그나마도 자결하고자 하는 애황을 시비 난향이 말려 男服을 입게 하는 것이므로 여성영웅소설의 女化爲男 중 가장 소극적인 형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홍계월의 경우 부모가 너무 영민한 딸의 명이 짧을까 염려하여 관상을 보았다가 다섯 살에 부모와 이별하게 되리라는 말을 듣고 男服을 입히고 글을 가르친다. 작품 속에 그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운명을 피해보려 한 것이거나 부모 품을 떠나게 되더라도 그 쪽이 유리하리라고 판단한 것일 듯하다. 계월이 스스로 남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예언대로 다섯 살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여공에게 구출되었을 때이다. 그 당시 여자임을 밝히지 않고 계속 남자 행세를 한 이유는 출장입상한 후 여성임을 밝히는 상소에서 확인된다. 여자임이 밝혀져 규중에 머물게 되면 부모를 찾기 어려울까봐 남자 행세를 했다는 것이다. 계월의 경우 타고난 기질이 남성적이었다고 하기보다는 남자로 길러지는 가운데 남성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너무 어린 나이부터 남자로 길러졌으므로 후에 다시 여자로 살게 되기 전까지는 여성적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영웅들이 다시 성 정체성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시점은 여성임이 밝혀지게 되었을 때이다. 남자행세를 통해 사회에 나가 성취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가정 내에서 규방의 여자로 살아가야 하게 된 상황에서 여성으로서의 존재적 고민을 시작하게 되고 남녀의 역할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 과정을 살펴보자.

여성영웅들은 대개 출장입상하여 큰 공을 세우고 높은 지위에 오른 후 신분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상소를 올려 본성을 밝히고 죄를 청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본의 아니게 신분이 드러날 위기에 처해 마지막 해 본색을 밝히지만 <이대봉전>의 경우에는 장애황이 난관에 봉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상소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장애황은 男服을 입을 때부터 자발적으로 남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던 탓에 지속적으로 여성적 정체성을 지닌 채 생활했을 것이다. 그녀는 공을 이룬 후 시부모와 정혼자의 祭를 올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광이 덧없음을 한탄하며 본색을 밝히고 규방에서 늙을 결심을 한다. 그러던 차에 죽은 줄 알았던 정혼자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자 원수를 갚을 일조차 그에게 미루며 상소를 올려 신분을 밝히고 만다. 그리고 바라던 대로 정혼자 이대봉과 혼인을 이룬 후 별다른 갈등 없이 잘 산다. 이처럼 장애황에게서는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불만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녀의 경우 여성적 처지에 문제를 제기하며 남자의 삶을 동경한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옥주호연>의 경우 주인공들이 강한 남성 지향 의식을 보이면서 가출을 했던 것과는 달리 입신양명한 후에는 부모를 그리워하며 여성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결국 이들의 본성을 미리 짐작하고 있던 채씨 삼형제에 의해 여성임이 밝혀지고 그들과 혼인을 이루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심리적 저항감이나 거부의 행동 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女服을 입고 혼인을 하게 되었을 때 당황스럽고 착잡한 마음에 일시적으로 눈물을 흘릴 뿐 그 이후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해 더 이상의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렇게도 거부하던 여성적 삶에 너무 쉽게 적응해 버리는 이들의 태도는 주목할 만한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수정전>, <홍계월전>, <이학사전>의 경우에는 어의가 진맥을 통해 여성임을 알아차리거나 황제가 부마를 삼으려 하는 바람에 주인공들이 마지못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들은 여성임이 밝혀진 후에도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규중여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는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낸다. 이러한 거부감은 혼인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 차라리 혼자 늙을지언정 남의 아내가 되어 남성의 절제를 받는 것은 피하고자 한다. 세 작품 중 혼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거부감을 덜 보이는 정수정의 경우 상대가 어렸을 때 정혼한 사람이고 피치 못하여 남자 행세를 했던 것이므로 굳이 황제의 명을 거역하며 혼

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수정 역시 자신보다 능력 면에서 한 수 아래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인 생활 중 갈등을 겪는다. 홍계월 역시 이와 비슷한 부부갈등을 겪는다. 이현경은 혼인에 대해 가장 강한 반발감을 표현하는 경우인데 끝까지 혼인을 거절하다가 황제의 계교에 속아 성혼한 후에도 계속 남편을 멀리하며 시대과도 갈등을 빚는다. 이는 이현경이 어려서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남성화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때문일 것이다.

한편 <방한립전>의 주인공인 방관주의 경우 죽음에 임박해서야 자신이 여성임을 실토한다. 계속 남성적 정체성을 지닌 채 살아가던 방관주는 혼기가 되자 여성임이 밝혀질까봐 걱정하면서 남자 행세를 지속하기 위해 아내를 맞이할 생각을 한다.⁷⁾ 이 경우 여자로서 남자 행세를 하며 아내를 맞이하려는 것은 신분이 탄로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보다는 방관주의 의식이 그만큼 남자에 근접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듯하다. 작품 곳곳에 방관주가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게 그러지는데 그것이 여성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에 근거한 것이기보다는 정말로 남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⁸⁾ 방관주의 전생을 남자로 설정해 놓고 있는 작품 내용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방관주는 원래 천상의 문곡성이었는데 상아성과 금슬이 너무 좋아 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다가 이 세상으로 내쳐진 것이며 원래 남자이므로 이생에서도 남자의 행세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세상에서 여자끼리 부부가 되게 한 것은 천상에서 두 사람의 금슬이 좋아 너무 방자했던 것에 대한 벌이라는 것이다.⁹⁾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여성영웅들 중에는 태생적으로 남성적 기질을 타고나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남성화하는 인물도 있고, 상황에 의해 피치 못하게 남성 행세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든 이들이 여성의 처지나 성역할을 만족스럽게 인식하지는 않는다. 생물학적 성을 따를 때 당대 사회에서 행복한 성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여성영웅들은 생물학적 성에 의해 규정된 삶을 거부하기 위해 자신의 젠더를 남성화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들의 고민을 통해 일차적으로 당대 여성 현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 소설들의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의 남성 지향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본고의 문제의식이다. 이들의 남성적 행위를 강한 여성 의식에 입각하여 여성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 반대로 남성적 질서를 동경하면서 그에 동화되어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고찰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여성영웅들의 주체화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과정을 통해 여성영웅이 자신과 세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좀 더 분명해질 것이며 더불어 그들의 가치 지향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리라 여겨진다.

2.2. 여성영웅의 주체화 과정

조선후기에 유교적 가부장제가 확고히 자리 잡아 가는 가운데 여성은 타자화된 존재로서 사회에서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소외되었다. 여성은 三從之道의 논리 속에 아버지, 남편, 아들의 구속 안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며, 이 경우 늘 그들의 타자로서 인식될 뿐 자립적인 개인으로서 독자적 삶을 영위하기 어려웠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문 밖 출입은 금기시되었으며 규방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가부장적 질

7) 결국 방관주는 영혜빙을 아내로 맞이하는 모험을 하는데 천행으로 영혜빙과 뜻이 맞아 신분이 탄로되지 않은 채 知己로서의 부부 관계를 유지해 간다.

8) 방관주가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부분은 남자로서의 권위를 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시점이나 음양을 속인 죄로 천벌을 받아 죽을 것임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처지를 예석해 할 때인데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비판하는 가운데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안타까워하며 남성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질적으로 남성이 되고자 소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9) 이런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의 결혼을 女道 거부와 절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이 작품을 급진적 여성해방의식을 보이는 작품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차옥덕, 『백 년 전의 경고-방한립전과 여성주의』, 아세아문화사, 2000)

서에 복무하는 타자로 양육되었다. 여성의 권위가 비로소 인정되는 시점은 어머니로서 훌륭한 아들을 길러 내었을 때인데 이 지점에서 여성은 여전히 아들의 어머니로서 권위를 부여받았을 뿐 여성 자체로 주체적인 자리를 획득한 것은 아니었다. 즉 당대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적 지배 질서 속에서 타자화되는 가운데 교육에 의해 체화된 대로 스스로도 자신을 타자로서 인식하고 타자로서의 삶에 길들여진 채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¹⁰⁾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여성영웅들이 여성으로서의 자기 존재에 대해 문제의식을 지니고 자신을 주체화하고자 남성으로의 변화를 시도했다는 사실은 일단 중요하게 평가할 만한 것이다. 당대 사회 속에서 타자로서의 여성에 대해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함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체화를 도모하는 방법이 자신들을 타자화한 가부장제에 기대어 남성으로의 전이를 피하는 것이라는 점 때문에 여성영웅들의 주체화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들의 남성적 행위가 여성의 주체성 확립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남성 선망을 드러내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여성영웅소설을 주체와 타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해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여성영웅들은 영웅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듯 특이한 자질을 타고난 존재들이다. 文武를 겸비하는 능력과 천하를 호령하는 기상 등은 그들이 凡人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조건이다. 심지어 버금가는 능력의 소유자인 배우자들마저도 여성영웅들과의 비교에서는 한 수 아래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자질을 타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성으로 태어난 이상 그 능력을 펼칠 기회를 획득할 수가 없다. 여성에게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영웅들은 자신이 여성적 현실에 머무는 한 주체가 되지 못하고 타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주체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간직하게 된다. 이 경우 주체가 되고자 하는 욕망의 근원은 그들의 타고난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주체화 욕망은 평범한 일반 여성의 현실과는 출발선에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 소설적 기법 내지는 장치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영웅성이 여성 일반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으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여성영웅들이 男服을 입고 남자 행세를 하게 되는 과정을 검토해 보면 어린 시절부터 남자의 길을 택한 인물은 이현경과 방관주, 유자주 자매 등이고, 나머지 인물들은 세상의 시련을 겪은 후 여성의 처지를 자각하고 비로소 男服을 입게 된다. 전자 중에서도 유자주 자매는 부모가 입신 양명에 대한 자신들의 소망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기존 질서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현경이나 방관주에 비해 좀 더 치열한 고민 끝에 男服을 입고 집을 나서게 된다.

어려서부터 남자로 행세해 온 이현경과 방관주의 경우 당대 사회에서 자신들이 타자임을 깨달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희박했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아직 사회의 차별적인 구조를 인식하기 이전부터 순조롭게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타자로서의 경험이나 인

10) 조선 후기 유교적 가부장제의 강화와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대표적 논저들은 다음과 같다.

김두현,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 연구』, 일지사, 1983.

이옥경, 「조선시대 정절이데올로기의 형성기반과 정착방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5.

한명숙, 「조선시대 유교적 여성관의 원리론적 고찰」,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6.

조옥라, 「가부장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여성학』2, 한국여성학회, 1986.

조혜정, 「가부장제의 변형과 극복-한국가족의 경우」, 『한국여성학』2, 한국여성학회, 1986.

김혜숙, 「조선시대의 권력과 성」, 『한국여성철학』, 한울아카데미, 1995.

이이효재, 『조선조 사회와 가족-신분상승과 가부장제 문화』, 한울아카데미, 2003.

식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남성화하고 주체로서 인식하며 그에 걸맞게 행동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여자로서의 도리를 지키라고 충고하는 유모의 말이 전혀 현실감이 없이 그냥 우습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들이 여성이자 타자로서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계기는 혼인에 의해 마련되는데 그 동안 자신을 여자로서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은 만큼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절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다. 이들의 경우 여성으로서의 삶을 경험하거나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에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들이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것은 여성적 현실에 대한 인식 때문이기 보다는 여성인 육체와 남성인 정신 사이의 불일치와 그로 인한 사회적 압박감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성별 규범이 엄격한 사회에서 그 사회가 정해놓은 젠더 체계를 순조롭게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공통적 고민일 것이다.

이에 비해 <옥주호연>의 세 자매는 일찌감치 부모를 통해 자신들이 그 사회의 타자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주체가 되기 위해 집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다. 이 때 규방은 그들을 타자화하는 닫힌 공간이고, 세상은 주체의 길을 열어주는 열린 공간을 대표한다. 그런데 이들은 성공하여 고관이 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꿈꾼다. 집은 자신들이 버리고 나왔던 여성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공간인데 이들이 그곳으로의 복귀를 소망한다는 것은 다시 여성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여겠다는 전제가 깔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이들은 혼인에 임해서나 혼인 후의 생활에서 별 거부감이나 갈등을 드러내지 않고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남장을 하고 집을 떠난 목적이 자신들의 포부를 펼치는 것이었는데 그 꿈을 이룬 다음에는 별 미련 없이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이다. 집을 나가기 이전의 여성의 현실과 공명을 이룬 후 복귀한 여성의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별 문제의식 없이 순응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 능력을 발휘하고픈 욕망을 해소했기 때문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욕망의 성취 후 깨달음의 장소로 선택한 여성의 자리가 여전히 타자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더 이상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의 처지에 대한 욕구불만은 일시적으로 해소했는지 모르나 여전히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는 것이다.

정수정과 장애황은 세상의 폭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세상의 폭력과 마주하기 전에는 자신들의 타자적 위치에 대해 별다른 고민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가 억울하게 죽고 난 후 비로소 문밖출입조차 부자유스러운 여자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막막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자신의 몸을 지키고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자신을 주체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그 방법으로 당대 지배 질서의 주체인 남성의 삶을 모방하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정수정이 주체적으로 새 삶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장애황은 여전히 타자적 의식에 강하게 구속되어 있다. 정수정이 혼인 후 자신을 종속적 존재로 대접하는 남편이나 시어머니와 갈등을 일으키는 반면 장애황은 약혼자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기꺼이 여성의 삶으로 복귀한다. 장애황의 경우 시련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타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각성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¹¹⁾

이에 비해 정수정은 이 논문에서 다루는 여성영웅 중 가장 여성인식을 잘 드러내 줄만한 인물이다. 여성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여성의 현실을 잘 알고 있고, 남성적 경험을 통해 주체적인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여

11) 이는 <이대봉전>의 작품 성격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 작품은 다른 여성영웅소설과는 달리 여성영웅의 서사만이 부각되는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대봉과 장애황이라는 남녀 주인공의 영웅적 모습을 동시에 그려내고 있어 다른 작품에 비해 남성주인공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편인데 이는 남성주인공을 표제로 삼고 있는 작품 제목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이 작품의 경우 여성영웅소설 중 여성적 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축에 속한다고 하겠다.

성의 처지를 비판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수정은 일정 정도의 성취를 이루어낸다. 여성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의 대원수가 됨으로써 수많은 남성들을 휘하에 거느리며, 혼인 후에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삶을 거부하고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독자적 존재로서의 위상을 드러낸다. 이는 여성영웅소설 중에서도 주체적 인식이 두드러지게 형상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소설의 선진적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정이 보여주는 여성적 인식의 한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수정은 자신의 주체화에 있어서는 선진적인 성취를 이루었지만 여성 일반의 타자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부족한 듯하다. 그 한 예로 정수정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처지인 두 명의 처¹²⁾에게 전혀 연대의식을 보이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모두 대단한 가문의 여식들이임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를 공유하는 가운데 그의 절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보이지 않으며,¹³⁾ 시집살이를 해야 하는 고통은 그들과 자신이 마찬가지로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나 시어머니와의 문제를 자기 개인의 권위와 관련지어 받아들이고 있다. 이처럼 정수정은 혼인을 통해 새롭게 여성의 불합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이에 대해 울분을 터트리지만 이를 여성적 현실 일반에 대한 자각으로까지 확대시키지 못하고 자신과 남편 사이의 전도된 권력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에 머물고 말았다는 한계 역시 지니고 있다.

한편 홍계월의 경우 부모 슬하에 있을 때는 나이도 어렸고 어려움도 몰랐기 때문에 별다른 결핍요소가 없었을 것이다. 부모와 이별하고 강에 던져졌다가 여공에게 구출된 후에 비로소 소외된 존재로서 세상에 던져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터이다. 그런데 이 경우 계월이 인식하는 타자로서의 자아는 여성적 인식에 기반한 것이기보다 어린 아이이자 고아로서의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 보아야 할 듯하다. 홍계월 역시 남자처럼 길러져 여성적 삶이 어떠한지 경험해본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계월은 여성의 제약을 간과하고 부모를 찾기 위해서는 그대로 남자인 척하는 것이 유리하리라 생각한다. 이 경우 어린 계월이 여성의 현실적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여성의 주체화라는 관점에서 인식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홍계월도 혼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여성의 주체적 삶이 어떤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홍계월 역시 이를 특출난 영웅인 자신에게만 국한된 개인적 문제로 인식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홍계월이 남편의 애첩 영춘을 죽이는 삽화가 이에 대해 유용한 단서를 제공한다. 계월이 영춘을 참수해 버리는 과정은 여성의 주체화 논의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선 계월이 여성의 타자적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을 주체화한 것이라면 다른 여성 일반에게도 동류적 의식을 지니는 것이 당연하다. 여성적 문제는 한 개인의 차원에서 제기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월은 본부인의 입장에서 영춘을 철저히 타자화한다. 여기에는 일부다처제 사회에서 여성들 사이에 존재했던 대결의식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애첩을 사이에 두고 남편의 사랑을 다룰 만큼 계월이 남편의 사랑에 연연하는 것도 아니고, 애첩으로 인해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을까봐 두려워할 상황은 더더욱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여성들간의 경쟁문제로 파악하기 힘들다. 오히려 단호하게 영춘을 제거해 버린 계월의 행위는 남편 보국을 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부부가 됨으로써 뒤바뀌어버린 서열에 대한 불만을 약자인 첩에게 풀어버린 혐의가 짙은 것이다. 영춘을 죽여 경계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위엄을 거스르지 말라는 것인데 감히 계월의 위엄을 거스르는 자는 부하이면서 남편 행세를 하는 보국밖에 없다.¹⁴⁾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홍계월이 여성으로서

12) 정수정의 남편인 장연은 정수정 외에도 두 명의 본처를 더 거느리고 있다. 정수정과 혼인하기 전에 원씨를 부인으로 맞이한 적이 있고, 정수정과 혼인한 후에 다시 공주와 결혼하여 세 부인을 거느리는 것이다. 여기에 애첩 영춘까지 더하면 장연에게 소속된 여인이 총 네 명이나 된다.

13) 이는 장편소설 중 여성의식이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들 중 상당수가 일부일처를 강조하며 첩도 들이지 않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과 비교가 된다.

14) 이와 똑같은 내용이 <정수정전>에도 등장한다. 그 경우에는 시모와의 고부갈등이 추가되어 있으나 문제의 본질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의 처지에 대해 불만을 품는 것은 여성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현실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는 것이기 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을 구속하는 현실을 원망하는 성격이 더 짙어 보이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들이 당대 사회의 타자인 여성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어떻게 주체화를 꾀했는지 논의해 보기로 하자.

타자화된 존재가 주체로 다시 서는 방법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우선 주변부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며 소외되어 온 타자의 현실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주체가 되는 길이 있다. 이 경우 비슷한 처지의 타자들에게 동류적 시선을 보내며 연대하게 된다. 타자였던 내가 주체로 서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를 타자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주체와 타자의 설정을 통해 권력 구도를 형성하는 세상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새로운 질서화를 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체화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하겠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타자의 자리에서 주체의 자리로 자리 바꾸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즉 타자의 존재적 기반을 긍정하는 대신 그것을 버리고 주체의 존재 기반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체화는 개인적 차원에만 한정된다. 다른 타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고 세상의 질서는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능력 있는 개인에 한하여 특수한 주체화가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타자화를 야기했던 대상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에 동화되어 가고자 하는 가운데 새로운 타자를 양산할 가능성도 있다.¹⁵⁾ 그러므로 자리 바꾸기에 의한 주체화는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의 주체화일 뿐이다.

만약 여성영웅들이 전자의 주체화를 이루어냈다면 그 기저에는 강한 여성적 인식과 여성적 연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여성영웅들의 모습은 타자까지 아우르는 주체화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때로는 이현경이나 방관주처럼 타자로서의 인식조차 결여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타자로서의 여성을 인식하기는 하나 그것을 개인적 차원에서 극복하고자 함으로써 여성 일반의 문제로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선택하는 남장이라는 수단 자체가 여성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드러내고 올바른 주체화를 도모하기에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¹⁶⁾

여성의 남장은 당대 사회가 여성에게 부과한 성역할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적 질서에 근거하여 남성성을 드러내는 한에서만 주체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의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자칫 남성적인 것만이 진정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남성 우월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여성의 능력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남녀의 평등을 주장하고자 하는 진보적 의식이 역으로 당대 사회가 규정한 남성적 역할에 대한 선망이나 찬양으로 곡해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벗어나는 길은 여성의 문제를 여성영웅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일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여성을 타자화하는 현실의 부조리를 직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존재 가치를 재인식함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영웅소설들은 여성 능력의 인정과 이를 통한 남녀 평등의 문제제기라는 의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성 일반의 문제로 확대하여 진정한 여성의 주체화를 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고 하겠다.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들은 모두 여성인 현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게 한이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한다. 이것들이 여성적 인식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여성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가

15) 이에 대해 박혜숙은 여성영웅들이 평등의 성취를 위해 남성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남성들의 긍정적 가치뿐만 아니라 부정적 가치까지도 모방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박혜숙, 앞의 글, 174-175쪽.)

16) 이에 대해서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그 방법이 아니고는 여성의 능력을 사회에 나가 펼쳐 보일 길이 없으므로 이를 한계로 지적하여 여성적 의미를 감소시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시대적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자신들을 타자화하는 제도에 대해 한 마디 비판적 언급도 없이 그 제도를 이용하여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만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현실을 폭로하고 여성의 존재 의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인공들이 여성임이 밝혀진 후의 작품 내 언급들을 살펴봐도 능력있는 인물이 여자여서 애석하다고 할 뿐 여자는 능력을 갖추고서도 등용될 수 없는 현실을 반성하지는 않는다.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구조가 부조리한 것이라는 인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품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표현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다고는 말하기 힘들 것 같다. 주인공들이 자신들을 타자화하는 남성들을 모방하면서 그 부조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는 해도 그에 대한 자의식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그들의 한탄이 남성에 대한 동경으로 읽히는 경우도 많다.¹⁷⁾ 이는 자기 존재 기반을 부정하고 이루어지는 주체화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주체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영웅의 의의와 한계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여성영웅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는 남성의 모습으로 사회적 성공을 거둔 여성영웅의 행위를 시대적 한계 내에서 해법을 모색한 것으로 높이 평가해야 할지, 오히려 여성영웅 자체도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지배 이데올로기에 견인된 것으로 비판해야 할지를 재검토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후기에 유행했던 일군의 군담영웅소설들이 당시의 대표적 대중소설들이었고, 그로 인해 대중소설 특유의 상투성과 통속성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중 한 부류였던 여성영웅소설 역시 그러한 장르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¹⁸⁾ 당대에 산출된 혁신적 작품들조차도 그 사회의 이념적 자장 안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대중적 인기를 염두에 두고 흥미 위주로 창작된 여성영웅소설이 작품 내에서 지배 질서를 수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당대 지배 질서에 강하게 구속될 수밖에 없는 표면적 구조의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작품이 그러한 구조 안에 당대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면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선 여성영웅소설이 기존의 사회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여성영웅을 등장시켜 남성적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명분에 따른 남녀의 역할 구분보다는 실질적인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새로운 사고와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근대적인 여성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적극적인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¹⁹⁾ 여성영웅들이 타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주체로서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우열론에 입각한 남녀 차별관에 균열을 일으킨 것은 의의를 인정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몇몇 논의에서처럼 이를 근대적 의식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우선 여성영웅소설이 진정으로 남녀의 역할 구분을 새롭게 재인식하는 수준까지 나아갔는지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 여성영웅의 대 사회적 활동은 그가 남성의 외피를 입었을 때만 가능하다. 여성임이 밝혀진 후에는 아무리 걸출한 영웅적 면모를 지닌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가정으로의 복귀가 당연시된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된 여성영웅들은 혼인 전의 위계와는 무관하게 가정 내에서 부부간 위계질서에 순종하도록 요구 받는다. 여성영웅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여성도 남성 못지않은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 사항으로 취급될 뿐이다. 전 사회적으로 남녀의 엄격한 구분은 여전히 견고하며 남성적 능력이 보다 가치 있는 것이고 우월한 것이라는 전제도 지속되고 있다. 여성영웅들조차도 여성의 존재나 女工을 하찮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기질

17) 이에 대해서는 장시광도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들에게서 '여성 거부와 남성 선망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시광, 앞의 논문, 42쪽.)

18) 영웅소설의 대중적 성격이나 통속적 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논자들이 선행연구를 통해 다룬 바 있다.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출판부, 1985.

박일용, 「영웅소설의 유형변이와 그 소설사적 의의」,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3.

성현경, 「유충렬전 검토」,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출판부, 1981.

진경환, 「영웅소설의 통속성 재론-〈유충렬전〉을 중심으로 한 시론」, 『민족문학사 연구』3, 민족문학사학회, 1993.

19) 정병현·이유경, 앞의 글, 309-310쪽 참조.

이 남성적이고 활달하여 근본적으로 女工이 적성에 맞지 않았을 수도 있겠으나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것하고 가치 부여를 달리 하는 것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다.

여성영웅들은 능력 있는 존재로서, 사회에 공헌을 세울 수 있는 진취적 인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행동해 왔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의 절제를 받아야 하는 수동적 타자로 전락하게 된다. 여성영웅들이 여성으로서의 자기 존재에 대해 고민하고 여성의 지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경우를 당하여 여성 일반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불만은 철저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맴돌고 있다.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에 한탄할 뿐 여성 일반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부장제 하의 또 다른 타자이면서 신분적으로 약자인 영춘과 같은 존재를 처단해 버림으로써 힘의 우위를 과시하기도 한다. 이런 점을 통해 볼 때 여성영웅들의 주체되기 과정은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 차원의 주체화이기는 해도 여성적 인식에 기반한 여성으로서의 주체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여성영웅의 고민과 저항이 보다 진지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채 특수한 경우로 취급되어 재미있는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²⁰⁾

그런 점에서 여성영웅들이 남성 중심의 지배 질서를 이용하는 것도 반성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당대 지배 질서의 주체인 남성의 행세를 하는 것이 과연 ‘여성의식을 드러내려는 소설적 전략’²¹⁾인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 이들은 남성의 영역에서는 철저히 지배 이데올로기를 신봉한다. 천자 중심의 중원 의식과 남성 중심의 지배 구조에 철저히 동화되어 오랑캐를 무찔러 교화하고, 영웅의 재취, 삼취 등 일부다처제를 당연시한다. 그러다가 여성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남편과 불화를 빚으며 가부장적 질서와 마찰을 빚는다. 이 부분이 주로 여성 능력의 우월성과 이를 가로막는 제도에 대한 비판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곤 했다.

그러나 중심부에서 남을 타자화하는 데 익숙했던 여성영웅들은 여전히 자신이 타자로서의 여성임을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 적응하지 못한 듯하다. 따라서 이들이 반발하는 것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기보다 자신에 대한 구속에 한정되는 경향이 짙다. 여성영웅들이 자신들이 신봉했던 천자 중심의 국가 제도가 자신들을 구속하는 가내의 가부장적 질서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모순을 깨닫기에는 역부족인 듯 보인다. 이들이 권력관계에 의해 상대를 타자화함으로써만 주체가 될 수 있었던 존재들에 대해 반성적 사유를 할 수 없는 것은 자신도 그 대열에 합류해 있기 때문이다. 주체와 타자의 이분법이 지니는 문제점에 대한 각성 부족은 바람직한 평등의 길로 나가지 못하고 또다시 누군가를 타자화하고 소외시킴으로써 자신의 주체화를 도모하는,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모습의 성취를 이루는 데 멈추게 한다. 이들이 능력의 우위를 이용하여 남성주인공들을 조롱하거나 첩들을 처단하는 것은 역전된 타자화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여성영웅소설이 보여주는 여성의식과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 지평은 문제제기의 차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지만 그 올바른 해법의 모색에 있어서는 아직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단계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한편 여성영웅소설이 독자에게 미쳤을 영향을 통해서도 그 의의와 한계를 논할 수 있다.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중심적 성격을 강조하는 논의 중에는 내용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설들의 담화 자체가 사회고발적인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²²⁾ 소설의 독자들이 내용 뿐 아니라 문체, 서술 방식, 서술자의 목소리 등에 섬세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분명한 점이고 그런 점에서 작품 내용의 표면적 전개와 이면의 문제의식을 동시

20) 여성영웅들이 혼인 후 남편의 절제를 받게 될 것을 애석해하며 마지막으로 군법에 따라 남편을 겁주는 장면이나 전쟁터에서 자신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남편을 조롱하는 장면 등을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 언뜻 남성을 조롱함으로써 여성들의 억눌린 한을 대변하고 여성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으나 조롱받는 남성만이 우스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국면 전체가 하나의 오락거리로 전락하면서 진지한 문제의식이 증발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1) 정병현·이유경, 앞의 글, 309쪽.

22) 김연숙, 앞의 논문, 208쪽.

에 포착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점에서 여성영웅소설들이 독자들에게 새로운 문제의식을 전달하는 데 얼마나 성공적이었을까 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러한 소설들은 여성독자들에게 현실에서는 이를 수 없는 소망을 이루게 해준다는 점에서 문학을 통한 욕망 해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었을 것이다. 여성영웅소설을 읽었을 여성독자들이 주인공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여성을 억압하는 현실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비판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리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너무나 비일상적인 여성영웅과 일상적인 일반 여성 독자들 간의 엄청난 간극으로 인해 그러한 대리만족이나 간접체험은 일시적이고 비현실적인 차원에서만 가능할 뿐이라는 한계를 동시에 내포한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여자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달콤한 소망이자 환상이지만 그 영웅과 비교할 때 너무도 평범해서, 불만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신이 오히려 더 초라해질 수도 있다. 즉 문학 작품의 향유를 통해 자신 역시 여성영웅처럼 주체가 되는 데 동참하지 못하고 도리어 영웅적 주인공에 비해 무능력하고 평범한 존재로서 타자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여성적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도 여성영웅소설처럼 일탈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이 아니라 여성이 마주하는 현실 자체를 보여주는 일군의 장편소설들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옥원재합기연>의 이현영이나 <창란호연록>의 한난희, 이운혜 등은 가정 내에서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갈등을 통해 당대 여성들의 문제를 현실감 있게 보여준다. 이들은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사회로 진출하는 등의 화려한 대리만족을 독자에게 선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남성적 질서에 의해 훼손되는 여성의 자존심, 능력이 있어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과 그런 현실 속에서 주체성을 지키고자 노심초사하는 여성의 고난사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나 그 사실적 모습이 독자의 문제의식을 자극하여 현실의 부조리를 더욱 적나라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이 소설들의 여주인공들도 당대 사회의 타자인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고 나름대로의 주체화를 피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들처럼 사회로 진출해 지배적 지위에 오르는 것으로 주체화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차원에서 남녀의 동등함을 주장함으로써 자존감을 세우는 길을 택한다. 그 행위는 여성영웅의 활약상에 비해 훨씬 미약한 것이지만 여성적 현실을 보다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자신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여성 일반의 문제로 자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식적인 면에서는 여성영웅소설에 비해 한 발 더 나아갔다고 하겠다.²³⁾ 비록 소설의 내용은 여성의 순종과 가정의 화목으로 결말을 맺고 있지만 담화의 힘에 의해 그 이면의 문제의식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은 이러한 소설에 적절한 언술일 듯하다.²⁴⁾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여성영웅소설은 능력 면에서 남녀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남성을 능가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주인공을 통해 당대의 여성차별과 구속을 비판하며 이를 통해 여성들의 소망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그 문제의식을 보다 진지하게 발전시켜 당대 여성 일반의 문제로 확대시키지 못하고 일시적인 여흥과 대리만족의 차원에 머물고 말았다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주체와 타자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들은 개인적 차원의 주체화에는 성공했으나 타자로서의 여성 일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여성의 주체화를 모색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타자화된 존재가 자신을 주체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타자성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성찰할 때에야 주체로

23) 따라서 이런 소설들의 경우 여성간의 연대 의식이 강하게 드러나는 편인데 <창란호연록>의 이운혜가 남편과는 불화하면서도 남편이 후처로 맞아들인 양소지와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가운데 화합하는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24) 이처럼 단편의 여성영웅소설과 여성적 인식을 강하게 드러내는 일련의 장편소설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특징적 차이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부장양문록>의 경우 그 중간적 성격을 지닌 문제작으로서 여성영웅소설의 소재를 장편의 소설 속에 활용하는 가운데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고 작품을 보다 진지한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있어 주목된다.(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19, 한국고전문학회, 2001.)

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여성영웅은 자신을 타자화한 대상을 모방하여 주체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주체와 타자라는 이분법적 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주체와 타자의 차별을 야기한 지배 질서를 추수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개인적 주체화를 이룬 듯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타자인 여성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자기 주변의 타자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이다.

여성영웅이 이루어야 할 여성으로서의 주체화는 남성 영역으로의 편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영역의 구분을 야기하는 구조적 모순을 문제 삼아야 가능할 것이다. 이를 간과할 경우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하되 그 차별을 비판하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남녀의 차이 자체를 무화해 버리는 동일성의 원리에 빠져버림으로써 남성지배질서의 권력구조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질서의 유지나 사회적인 융화를 위해 위협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욕망을 방출하는 방법의 하나로 영웅소설 유형의 이야기들이 향유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허용했을 것이라는 논의를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²⁵⁾

4. 결론

소위 알파걸들이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세상에 타자로서의 여성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반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여성영웅들에게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의 자기실현이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몇몇 개인의 문제로 논의되거나, 또는 여성성을 거세한 채 남성화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는 한 아직도 여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슈퍼우먼이 되어야만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현실은 여성영웅소설을 통해 제기된, 진정한 여성의 주체화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아직도 유효함을 보여준다.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평가는 당대 현실을 고려하여 그 의의와 한계를 논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타자화된 여성조차도 지배 이념에 강하게 경도되었던 조선후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여성의 영웅성을 문제삼은 것 자체가 획기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과 문제 해결의 방법 등을 보다 깊이 따져보다 보면 이 소설들의 획기적 의의를 더 부각시키지 못하게 가로막는 한계점들도 발견하게 된다. 최근의 논의들이 여성영웅의 남성화된 영웅성을 찬미하는 데서 벗어나 그것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게 된 것은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여성성 자체가 긍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지점에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전인 여성영웅소설들이 현재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면과 시간의 한계로 인해 여성영웅소설 전반을 다 검토하지 못한 채 논의를 전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논의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여성영웅소설 일반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지만 개별 작품들 사이의 편차가 존재하는 만큼 여성영웅소설 내부의 차별성에 초점을 맞춘 논의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선행연구자들이 시도한 유형화가 여성영웅소설의 주제적 차원과 어떻게 연관되며 그것이 이 유형 내의 세부적 분화 현상을 보여주는 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따져보는 작업도 의미 있을 것이다.²⁶⁾

참고문헌

25) 서대석, 「영웅소설의 전개와 변모」, 『고소설사의 제문제』, 집문당, 1993, 339쪽.

26) 이 점에서 여성영웅들이 등장하는 소설들의 계통 정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성영웅소설의 연구에 있어서 각 작품의 담당층이나 장르적 성격, 미의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 류준경의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 김연숙,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시각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1995.
- 김혜숙, 「조선시대의 권력과 성」, 『한국여성철학』, 한울아카데미, 1995.
-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 민 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6.
- 박명희, 「고소설의 여성중심적 시각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89.
- 박상란, 『여성과 고소설, 그리고 문학사』, 한국학술정보, 2005.
- 박일용, 「영웅소설의 유형변이와 그 소설사적 의의」,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3.
-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차이·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31, 민족문학사학회, 2006.
-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출판부, 1985.
- _____, 「영웅소설의 전개와 변모」, 『고소설사의 제문제』, 집문당, 1993
- 성현경, 「유충렬전 검토」,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출판부, 1981.
- _____, 「여걸소설과 설인귀전」, 『국어국문학』 62·63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73.
- 여세주, 「여장군 등장의 고소설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1981.
- 이인경, 「홍계월전 연구-갈등양상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17, 서울대 국문과, 1992.
- 장시광,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과 여화위남」, 『한국고전소설과 여성인물』, 보고서, 2006.
- 전용문, 「여성영웅소설의 계통적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1988.
- 정명기, 「여호계 소설의 형성과정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80.
-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19, 한국고전문학회, 2001.
- 정병현 · 이유경,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사, 2000.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 조옥라, 「가부장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여성학』 2, 한국여성학회, 1986.
- 조혜정, 「가부장제의 변형과 극복-한국가족의 경우」, 『한국여성학』 2, 한국여성학회, 1986.
- 진경환, 「영웅소설의 통속성 재론-<유충렬전>을 중심으로 한 시론」, 『민족문학사 연구』 3, 민족문학사학회, 1993.
- 차옥덕, 「女道 거부를 통한 남성우월주의의 극복:<홍계월전>, <정수정전>, <이학사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5권 2호, 1999.
- _____, 『백 년 전의 경고-방한립전과 여성주의』, 아세아문화사, 2000.

Heroine Novels on the viewpoint of the Subject and the Others

Lee, Jee-Ha

Heroine Novels have been evaluated reciprocally. There are opinions that these novels show strong consciousness of women because heroines achieve social success against men and deny the role of women under the men's control. On the other hand, some insist Heroine Novels still expose the ideology of Confucian Patriarchy.

This paper examines these problems on the viewpoint of the Subject and the Others. In these novels, heroines who struggle with discord between sex and gender establish subjectivity through they deny women's role and dress up as a man. In this case they contribute to show women's capacity and confirm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These novels deserve attention in that point considering circumstances of the late period of Joseon Dynasty which tighten control of women.

However these novels have limits not to accomplish subjectivity of general women because heroines can not perceive the troubles as general problems of whole women and they try to overcome personally and neglect somebody to achieve their success. As a result, Heroine Novels have significance in raising attention to women's problems under the strong patriarchy, but at the same time they have limits that can not get thorough recognition of women's condition and proper solutions.

Keywords : Heroine Novels, the subject, the others, subjectivity, equality, women